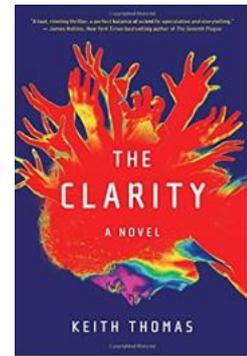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CLARITY
가제 : 밤의 의사들
저자 : Keith Thomas
출판사: Atria/Leopoldo & Co.
발행일: 2018년 2월 20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스릴러/초자연/의학



- * 저자는 현재 이 책의 영상화 대본 작업 중!
- * 넷플릭스의 <블랙미러> <트루 디렉티브>에 비견되는 스릴러로, 자신들을 파괴하려는 과학자 그룹으로부터 도망치는 심리학자와 한 소녀의 이야기
- * “강력한 데뷔작, 촘촘히 짜인 줄거리는 시종일관 유지된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기억의 실체, 그러니까 ‘기억’이 저장되고 되살아 나는 방식을 연구해 온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 마틸다 디켄은 어느 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 마틸다는 여가 시간에 사회 복지사로도 활동 해왔었는데, 동료 봉사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는 것이었다. 꽤 오랫동안 돌본 아샤니크라는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면, 열한 살짜리 아이가 꾸며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자신의 ‘기억’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마틸다의 연구 주제를 잘 아는 동료는 아이를 한 번 만나서 어떤 상태인지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마틸다는 호기심에 그러기로 한다.

아샤니크에게 이상한 일이 처음 벌어진 건 열한 살 생일이 지난 며칠 후 새벽이었다. 고향을 지르며 잠에서 깬 아샤니크에게, 1차 세계대전 시기인 1918년에 벨기에의 어느 전쟁터 한 가운데에 있었던 조지라는 훈련병의 기억이 떠오른 것이다. 아샤니크는 그 사건 한 복판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크레파스와 물감을 들고 손을 미친 듯이 휘두르며 벽면에 사진처럼 생생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채우기 시작했다. 고향 소리에 잠에서 깬 엄마 재니스는 그림엔 전혀 소질이 없어서 학교 선생님들도 아샤니크는 아무래도 예술 쪽은 아니라고 얘기하던 자신의 딸아이가, 무언가에 빙의 된 듯이 온 벽면을 그림으로 채우는 것을 우두커니 보았다. 곳곳에 연기가 피어 오르고 부서지고 망가진 집과 쓰러진 사람들의 모습은 지옥의 한 장면 같았다. 하지만 재니스는 아샤니크의 이상한 행동에 크게 놀라지 않았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충격보

다는 절망감이 더 컸다. 그리고 괜찮냐는 엄마의 물음에 아샤니크는 ‘난 조지다, 당신은 누구냐’며 되물었다.

20년 전, 재니스는 정부가 극비리에 추진하던 기억 조작 프로젝트 ‘클래리티’의 실험 대상이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위험한 실험에서 몰래 도망친 재니스는 오래 전 자신이 겪은 기억 실험의 영향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고 한층 더 강화된 형태로 발현된 것을 알아챘다. 재니스도 당시 과학자와 의사들이 실험이라는 명목으로 뇌를 해집어놓은 바람에 환각과 환청에 시달렸고 매일 신경을 제어하는 약을 먹고 겨우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아샤니크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마틸다는 아이가 내뱉는 이야기가 100여 년 전 죽은 군인의 기억에 국한되지 않고 무려 100만 년 전에 살았던 어느 가족이나, 17세기 인도에서 살았던 어린 소년의 기억 등 시간과 장소의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처음에는 어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한 아이들 특유의 장난 혹은 연기인 줄 알았지만, 그러기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비명을 지르거나 땀을 흘리는 등 아이의 신체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었다. 결정적으로, 아샤니크의 입에서 ‘밤의 의사들’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마틸다는 엄청난 공포를 느낀다. 얼마 전 상담했던 한 환자도 그 의사들이 살인 집단이라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남기고 자살해버렸기 때문이다. ‘밤의 의사들’은 실존하는 집단일까? 마틸다와 재니스가 아이의 기억 이상이 촉발된 뿌리를 찾기 시작한 순간, 아샤니크가 떠올리기 시작한 기억을 가로채고 없애기 위한 누군가가 바짝 따라붙기 시작한다.

20년 전부터 몰래 탈출한 재니스를 쫓고 있었던 실험 집단은 그녀와 딸 아샤니크에게 자신들이 오랫동안 찾으려 했던 ‘해답’이 있다고 단정 짓고 잔혹한 암살범 레이드를 보낸다. 마틸다에게 도움을 청한 재니스는 아샤니크를 무사히 마틸다에게 맡기지만 자신은 레이드에게 붙잡히고 만다. 재니스는 살인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해온 형사에게 도움을 청해 레이드 일당을 따돌리려 하지만 아샤니크까지 손에 넣으려는 알 수 없는 조직의 추격은 점점 목을 조여 온다. 클래리티 프로젝트가 사람들의 뇌를 조작하여 얻고자 했던 최종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걸까? 아샤니크가 마치 자신의 기억처럼 또렷하게 떠올리는 기억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의 기억일까, 조작된 환상에 불과할까?

임상 연구자 출신의 저자가 과학적인 사실에 생명의 부활과 사후세계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상상력을 더해서 완성한 흥미진진한 스릴러 소설이다.

**“긴장감과 흡입력이 가득한 스릴러. 과학적인 상상력과 스토리텔링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소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Seventh Plague』의 작가 제임스 롤린스**

<저자 소개>

키이스 토머스(Keith Thomas)는 콜로라도 덴버 의과대학교 소속 임상 연구자이자 국립 유대인 건강연구소 연구자로 일하다가 영화, 드라마 각본가로 일하기 시작했다. 작가 제임스 패터슨(James Patterson), 영화감독 폴 해기스(Paul Haggis) 등과 함께 일했다.

제목 : THE FORGOTTEN GUIDE TO HAPPINESS

가제 : 나의 원로 소설가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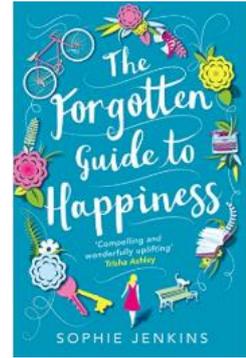
저자 : Sophie Jenkins

출판사: Avon

발행일: 2018년 8월 9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로맨틱코미디



*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멋진 소설” – 작가 트리샤 애슐리(Trisha Ashley)

* 위기에 처한 20대와 80대 두 작가의 우연한 만남, 그곳에서 시작되는 변화와 새로운 이야기

리나 그린은 떠오르는 젊은 베스트셀러 작가다. 남자친구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자전적인 소설 <러브 크레이지>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출판사와 소설의 2편도 계약했다. 그러나 리나 그린은 그만 남지친구와 헤어지고 만다. 그리고 밝고 쾌활한 스토리라인으로 큰 사랑을 받은 리나의 첫 소설과는 달리, 2편은 우울한 실연의 이야기가 되고 만다. 당연히 출판사에서는 예상과는 정 반대인 그 원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라나는 일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위기에 내몰린다.

라나가 쓴 2편은 제목부터가 <실연>이었다. 독립적이고 주관이 뚜렷한 로렌과 자연 속에서 즐기는 아웃도어 활동이 삶의 낙인 마르코, 두 주인공이 만나 차츰 서로의 마음을 차지하고 마지막에 함께 살기로 하면서 끝난 1편 <러브 크레이지>의 이야기와 분위기도 흐름도 확 바뀐 것이 문제였다. 라나의 담당 에이전트는 ‘이런 내용이라면 도저히 출판을 할 수가 없다’는 출판사 측의 냉정한 의견을 라나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일부분을 살릴 생각도 하지 말고 아예 전부 다시 쓰라는 것이다. 이 2편의 내용에는 1편과 마찬가지로 라나의 연애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른 사람과 한 번도 함께 살아본 적이 없었던 라나가 마크를 만나서 한 달도 되지 않아 동거를 시작하고, 4개월을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면서 쓴 것이 1편이었다면, 바하마로 장기 출장을 떠난 마크가 약속한 날짜에도 돌아오지 않고 그 이유가 사업상의 이유가 아닌, 그곳 해변에서 만난 스웨덴 여자와의 새로운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라나가 겪은 고통의 시간들을 담은 것이 2편이었다. 하지만 에이전트의 말대로, 이는 행복한 주인공 커플의 동거 생활을 기대했을 독자들에게 대한 배신이나 다름 없었다. 무슨 내용을 쓰건 작가 마음이지만, 이미 첫 편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끈 만큼 어느 정도 독자들과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몇 개월을 공들여 쓴 원고가 퇴짜 맞은 충격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마당에, 정해진 날짜에 만족스러운 원고를 납품하지 못했으니 이미 지급한 선수금을 뺏어내라는 계약 조건이 두 번째 펀치를 날리고 말았다. 마크와 돌이 나누어서 내던 월세도 이제 혼자 감당해야 하는 라나는 말 그대로 순식간에 파산하고 만 것이다. 그리고 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출판사가 원하는 ‘깨알 같이 유쾌하고 알콩달콩 사랑스러운 연애 소설’을 써 내야만 했다. 일단 생계부터 유지할 방법을 찾던 라나는 얼마 전에 가차없이 거절했

던 대학 강사 제안을 떠올리고 아직 자리가 남았는지 연락한다. 그리하여 런던 북부, 한 대학의 저녁 타임 글쓰기 강사 자리를 얻고 금전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꼭 막혀버린 글은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실제로 겪은 일을 약간 다듬어서 쓰는 것에 익숙해진 라나에게는 현 상황과 무관한 상상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지어내는 일이 고역이고 불가능한 일이었다.

에이전트에게 원고를 퇴짜 맞은 날, 라나는 혼자 바에 들러 와인을 한 잔 마시다가 인상 좋은 남자와 잠시 동석했었다. 잭 뷰캐넌이라고 이름을 소개한 그는 라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건네다가, 작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양어머니도 글을 쓰는 사람이라 그 고충을 잘 안다고 말했었는데, 라나는 강사로 일을 시작한 후 우연히 잭과 다시 만나게 된다.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고, 어머니를 소개해주겠다는 잭의 말에 따라나선 라나는 현관 앞에 등장한 얼굴을 단번에 알아본다. 여섯 살 때부터 작가를 꿈꿨던 라나와 엄마가 한 권도 빠짐없이 읽었던 로맨스 소설의 대가, 낸시 엘리스 홀이 바로 잭의 양어머니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낸시는 치매를 앓고 있고, 아들인 잭도 못 알아볼 만큼 기억도 인지능력도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다.

낸시 엘리스 홀은 이름만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오랫동안 두터운 팬 층을 거느렸던 소설가다. 라나는 그런 낸시 엘리스 홀이 80대가 되어 치매와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의 우연한 만남은 뜻밖의 우정과 교감으로 이어지고,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 따뜻한 교류 속에서 차츰 드러나기 시작한다.

50대에 잭의 부친과 결혼한 후 직접 낳은 자식이 없어서 친어머니처럼 잭을 돌봐주었다는 낸시는 치매 노인 특유의 극심한 변덕과 고집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했고 지역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요양 시설로 보내야 한다고 연일 압박하는 상황이었다. 전문적으로 병을 이해하고 낸시를 돌봐줄 사람들이 있는 곳이 남은 여생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그들의 견해였지만, 라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다. 기억은 희미해졌을지언정, 낸시는 평생 독자들을 울리고 웃게 한 자신의 소설처럼 여전히 유쾌하고 장난꾸러기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면을 간직하고 있었다. 잭도 낸시를 남의 손에 맡길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두 사람은 지역 기관과 맞서 낸시가 익숙하고 편안한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싸우기 시작한다. 이제 막 작가로서 출발선에 선 라나와 수십 년을 종이와 펜을 쥐고 이야기를 쓰면서 살아온 낸시 사이에는 세대를 뛰어 넘는 우정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두 사람은 각자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그러나 무엇보다 간절했던 구원의 실마리를 서로에게서 발견한다. 사랑과 우정의 힘, 그리고 작가라는 직업의 현실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 매력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소피 젠킨스(Sophie Jenkins)는 단편 소설 작가로 활동하면서 작가 워크숍 등에 참여해 왔다.

제목 : SMALL NIGHT
가제 : 혐오와 집착
저자 : Madeline Stevens
출판사: Ecco (U.S) / Faber (U.K)
발행일: 2019년 여름
분량 : -
장르 : 서스펜스/심리스릴러



- * 미국, 영국, 이탈리아 판권 계약
- * 레일라 솔라마니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를 합친 듯한 글!

변변한 직업을 찾지 못하고 늘씬한 몸매와 예쁜장한 얼굴로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엘라는 나이만 같을 뿐,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다른 아기 엄마 로니의 집에 유모로 취직한다. 로니와 남편 제임스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아들, 윌리엄을 하루 종일 돌보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이전에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엘라는 부족한 것 전혀 없는 뉴욕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풍족하고 호화로운 생활에 차츰 익숙해진다. 방이 총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이 많은 타운하우스에서 우아하게 차려 입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로니는 엘라에게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처럼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경멸스러운 존재였다. 그러나 너무 달라서 궁금했던 로니의 그림 같은 삶에 대한 엘라의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집착에 가까운 관심으로 변해가고,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모호한 동경은 과감한 행동으로 바뀌며 넘지 말아야 할 위험한 행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한다.

웃이나 액세서리를 파는 고급스러운 상점에서 마네킹처럼 서 있는 점원으로 일하던 엘라가 유모 일을 맡은 것은 하루 종일 1분도 앉아 있지 못하고 웃으면서 오가는 손님들을 대하는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렇게 일을 하고도, 저녁이면 바에 앉아 대신 밥값을 내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오리건 주, 외딴 변두리에서 나고 자란 엘라는 대학에 진학한 것도 아닌데 덜컥 뉴욕에 입성해서 굳이 이 고달픈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누군가 왜 하필 뉴욕에 왔느냐고 묻는다면 딱히 이야기할 만한 이유도 없었다. 마치 먼지 풀풀 날리는 외딴 서부 사막 지대 사람들이 도시로 꾸역꾸역 모여들듯이, 어릴 때부터 뉴욕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곳, 가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희망이 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고, 스물여섯 살이 되도록 엘라는 그럴다 할 직업도 찾지 못했다. 지갑도 통장도 늘 텅 비어 있어서 늘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했다.

그렇게 한동안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엘라는 놀이터에서 로니와 제임스, 그리고 윌리엄을 만났다. 일종의 면접 날이던 그 날도, 아기 엄마는 마치 면접 보는 사람이 자신인 것처럼 펜슬 스커트에 힐을 갖춰 신고 나타났다. 기존에 만났던 다른 엄마들처럼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지도 않고, 몇 시까지 일을 해야 하는지 급여는 얼마인지 정도만 간단히 이야기하고는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로니는 엘라에게 덜컥 집 열쇠를 건넸다. 자신의 이니셜로 보이는, 알파벳 R이 선명

하게 새겨진 열쇠부터 주는 동갑내기 애 엄마를 보면서 엘라는 참 멍청하구나, 생각했다. 동시에 어쨌든 배는 굶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부터 스쳤다.

거대한 저택들이 즐비한 부자 동네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건물은 로니와 제임스의 집이었다. 전에 일하던 유모가 너무 차갑고 매정한 사람이라 내보냈다고 설명하면서, 로니는 엘라에게 아무 것도 바라는 것이 없으니 그저 편한 대로, 내키는 대로 윌리엄을 돌봐주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아이와 함께 있을 때는 개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작은 통에 돈도 넉넉히 넣어두고, 부엌에 있는 음식은 아무 때나 마음대로 먹으라고도 했다. 몇 개월을 굶으며 지낸 엘라는 윌리엄이 고이 잠들면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가 워든 가장 최고급으로 쌓여 있는 그 집 음식들을 하나하나 음미하고, 저녁에 먹기 위해 몰래 챙겨두곤 했다. 로니는 외출이 잦았고, 아직 아기인 윌리엄은 꽤 오랜 시간 낮잠을 자는 날이 많아서 엘라는 텅 빈 집에서 로니의 물건들, 옛날 사진들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누구나 손댈 수 있을 만한 앨범이나 밖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았으나, 점점 서랍과 선반 속, 누군가 꾀꾀 숨겨둔 물건들까지 뒤지기 시작했다.

화자인 엘라는 자신과 너무 다른 새로운 삶에 깊이 빠져든다. 핑크빛 벨벳 천에 고이 싸여 있는 아기 치아, 로니가 고등학교 시절에 휘갈긴 듯한 의미심장한 내용의 메모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말이다. 로니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될수록 이 삶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고, 마치 자신이 로니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진 엘라는 급기야 자신이 로니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아슬아슬한 엘라의 행동은 제임스, 그리고 손자를 만나러 온 로니의 아버지 로버트의 눈에 발각되고, 이제 더 이상 벗어나고 싶지 않은 유모 일을 그만 뒤야 할 위기에 처한다. 이해할 수 없는 엘라의 행동들은 정말 엘라의 변명처럼 로니가 다 계획하고 유도한 일일까? 이야기가 흘러갈수록 엘라와 로니의 비뚤어진 우정이 생각보다 깊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지점에 이른다.

가질 수 없는 것을 최대한 가지려는 욕망, 그 욕망을 이용하려는 교묘한 심리, 집착을 두 여성의 묘한 관계를 통해 보여주는 긴장감 가득한 심리 서스펜스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매들린 스티븐스(Madeline Stevens)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예술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Luna Luna Magazine」, 「Scribd」, 「Blunderbuss Magazine」, 「People Holding」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매월 유명한 작가와 신예 작가를 소개하는 웹 사이트 'Sundays at Erv's'를 만들고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다.

제목 : THE RULES OF SEEING
가제 : 마음이 눈뜰 때
저자 : Joe Heap
출판사: HarperCollins
발행일: 2018년 8월 9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영미문학일반



*** 스웨덴, 독일 판권 계약**

*** “세상을 다른 빛으로 비춰서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 놓는 책. 너무나 참신하고, 독창적이고 생생하다.” -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미란다 디킨슨(Miranda Dickinson)**

케이트가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의식을 잃은 건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된, 추운 1월의 어느 날이었다. 새해를 맞이하는 축제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서 전날까지도 남편 토니와 함께 밤 늦도록 마당에 나가 불꽃놀이를 구경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라디오를 틀고 콧노래를 흥얼대며 스프를 끓이고 있을 때 벌써 출근 준비를 마친 토니가 주방에 나타났다. 런던 경찰청이라는 이름이 굵게 새겨진 지갑을 꺼내서 아내가 생활비로 쓸 돈을 꺼낼 때만 해도 평소와 다를 없었던 부부의 기분 좋은 아침은 수표와 함께 떨어진 작은 쪽지 하나로 확 바뀌고 말았다. 반으로 접힌 작은 종이는 케이트가 서 있던 조리대 바닥으로 날아왔고, 자연스럽게 몸을 숙여 종이를 집어 든 케이트는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린 토니의 반응을 느꼈다. 그렇지만 앉았더라도 바로 건넌을 텐데, 갑자기 긴장하는 남편을 보면서 쪽지를 열어봐야겠다고 케이트가 마음 먹은 순간 토니는 돌려달라고 강하게 말했다. 농담도 웃음도 전혀 섞여 있지 않은, 심각한 음성이었다. 케이트가 장난이겠거니, 애써 그렇게 생각하면서 싫다고 하자, 토니는 딱 벌어진 몸으로 성큼 다가왔다. 토니가 무섭다고 느낀 건, 결혼 2년 만에 처음이었다. 뒷걸음질 치던 케이트는 부엌 바닥에 놓인 상자에 부딪혀 그만 쓰러졌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토니가 기절한 자신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소파에 눕혀놓은 채로 출근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케이트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한 달쯤 후, 가시지 않는 어지럼증 때문에 혈종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병원에서 만난 케이트와 노바, 실제 눈과 마음이 눈이 멀었던 그들이 조심스레 다시 내딛는 걸음

의사인 오빠가 적극적으로 권하는 바람에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 시력 복구 수술을 받은 노바는 짙은 선글라스를 벗지 못하고 아기처럼 아주 천천히 보는 법을 배운다. 5개 국어에 능통한 옥스포드 출신의 유능한 통역사로 런던 경찰청에서 일했고 워든 혼자서 척척 해낼 정도로 시각 장애인이란 사실이 믿기 힘들 만큼 잘 살아온 노바였지만, 한 번도 사용해본 적 없는 눈과 시력이 하루아침에 생긴 이후부터는 하루하루가 혼란의 연속이었다. 처음에는 종이에 그려진 간단한 그림으로 사물의

생김새와 이름을 익혔지만, 과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외워서 배우는 일이 가능할까?

시력이 생기기 전보다 세상이 더 두려워진 노바는, 뇌 수술을 받은 케이트를 병원 휴게실에서 우연히 만난다. 케이트는 호기심과 공포를 동시에 드러내는 노바에게 큰 호기심을 느낀다. 눈을 뜨고 처음으로 친구가 생긴 노바는 상상만 했던 것들이 형체를 가지고 눈 앞에 나타나면서 찾아오는 당혹스러움을 견디며 시각에 적응해가다가, 케이트의 결혼 생활에 찾아온 위기를 감지한다. 세상이 기대했던 것처럼 밝고 아름답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케이트를 덮친 문제는 겉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심각하고 섬뜩한 일임을 인지한 노바는 무슨 일이 있어도 케이트를 도와주리라 결심한다. 서로가 좀 더 나은 곳으로 향하기를 바라는 케이트와 노바의 진심은 각자의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따뜻한 우정으로 발달한다.

서른두 살이 되도록 캄캄한 세상에서 살아온 노바가 새로 개발된 수술을 받고 난생 처음 세상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아무리 유명한 안과 의사도, 평생을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온 주변 사람들도 노바에게 ‘보는 법’을 가르쳐주지 못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노바는 눈에 무언가가 보이는 낯선 경험에서 배운 사실들을 일종의 규칙으로 정리하기 시작한다.

‘물체 A가 물체 B를 가리면 A가 더 앞에 있는 것’, ‘자동차나 기차처럼 움직이는 차량에 타고 갈 때는 눈을 창문에 바짝 붙이거나 아예 감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한 어지럼증에 시달린다.’ ‘누군가 손에서 놓친 풍선이 하늘 위로 뚝뚝 떠 갈 때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풍선은 가만히 있고 내 몸이 아래로 똑 떨어질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든다. 착각이니 놀라지 말 것.’ 보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불필요한 노바의 규칙들은 아예 생각해본 적도 없는 일이기에 더 놀랍고, 당연하게 여겨온 인체 감각에 다시 주목하게 만드는 힘을 발휘한다.

노바가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이렇게 즐겁지만 조심스러운 여정을 시작할 때, 물리적인 시각은 정상이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케이트는 그 동안 몰랐던 진실을 깨닫는 마음의 눈을 뜨기 시작한다. 감겼던 눈이 열리면서 분명 익숙한 줄 알았던 세상이 두렵고 무서워진 노바와 케이트는 보이지 않을 때보다 더 간절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시기에 만나 가까운 친구가 된다. 그리고 서로가 걸어가기 시작한 새로운 삶에 든든한 지팡이와 이정표가 되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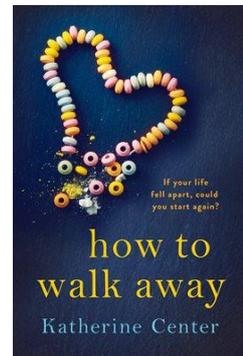
“마지막까지 초조하게 결말을 기다렸다. 굉장히 아름답고 기억에 오래 남을 이야기” - 『The Colour of Bee Larkham's Murder』 의 작가 새라 J. 해리스

<저자 소개>

조 힙(Joe Heap)은 스텔링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팸플릿 형태로 몇 차례 작품을 발표하고 포일 신인 시인 상(Foyle Young Poet)을 수상했다.

추가 업데이트

제목 : HOW TO WALK AWAY
가제 : 살아있으니 괜찮은 걸까
저자 : Katherine Center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8년 5월 15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 출간 전 독일, 러시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슬로바키아, 영국 판권 계약!
- * “한 번 읽으면 놓을 수가 없으니 날 잡아서 읽어야 할 책”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제니 로슨(Jenny Lawson)

MBA 학위과정을 막 마치고 엄청난 연봉을 약속한 직장에 첫 출근할 날을 앞둔 마가릿의 인생은 누가 봐도 이제 탄탄대로에 오른 것 같았다. 똑같이 학위를 따고, 대기업 재무분석가로 입사한 남자친구도 있었다. 겁이 많은 마가릿과 달리 번지점프며 스카이다이빙 같은 스포츠를 즐기는 그는 심지어 잘생기고 성격까지 좋았다. 그런 남자가 마가릿에게 청혼까지 했다. 어릴 때부터 마가릿의 언니는 집에서 자신이 ‘두뇌’ 담당이고 마가릿은 ‘미모’ 담당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 즈음 되자 두뇌와 미모, 두 가지가 마가릿에게 모두 쏠린 것만 같았다. 언니는 식구들과 떨어져 지내고 싶다며 홀연히 집을 나가 벌써 3년째, 이따금씩 살아있다는 정도만 알려올 뿐이었다. 마가릿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길을 닦아왔고 이제 그 결실이 눈앞에 모두 펼쳐진 참이었다. 그러나 남자친구 침이 마가릿을 위해 준비한 깜짝 이벤트가, 바로 손 닿는 곳에 있던 꿈들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파일럿 면허를 딴 침이 직접 모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파란 하늘을 날고, 로맨틱한 프러포즈가 이어졌을 때만해도 마가릿은 평생 무서워했던 비행이 잠깐 즐겁다고 생각될 만큼 벅찬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처음 비행기에 오를 때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땅에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사실 마가릿은 하늘을 나는 일을 누구보다 두려워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언니와 마가릿을 하와이로 보낸 적이 있었는데,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며칠 동안 한시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밤에 잠도 못 잘 정도였다. 물론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비행기에 올라야 하는 일이 생겼지만 매번 무사했다. 그렇다고 해서 비행 공포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3년째 사권 침이 어느 때처럼 저녁식사를 하러 가자고 했던 문제의 그 날, 마가릿은 처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늘 그랬듯 그 예감이 통쾌하게 빗나가 쓸데없는 걱정으로 드러나길 바랐지만 나중에 되짚어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었다. 침이 자신만만하게 조종석에 앉아 자신이 모는 비행기를 꼭 태워주고 싶다며 이야기할 때 마가릿은 비행기 날

개가 부러지면 어쩌나, 하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항상 비행을 두려워해왔기에 그런 걱정도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웬지 그날따라 확신이 들었다면 착각일까. 출발은 순조로웠고, 칩이 준비한 이벤트도 순탄하게 진행됐지만 착륙을 시도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활주로 가까이 강한 비행기의 방향과 직각으로 세차게 불어대는 돌풍에 몸체와 날개가 요동치고, 몇 번의 재시도 끝에 가까스로 바퀴가 콘크리트 바닥과 만나려는 찰나, 획 몰아친 바람에 비행기는 옆으로 뒤집히고 말았다. 칩은 얼른 조종석을 빠져 나왔지만 마가릿은 다리가 찌그러진 비행기 앞부분에 완전히 끼어버렸다. 칩이 구조 요청을 하러 간 사이, 연료탱크 쪽에서 불길이 솟기 시작했다. 천 년 같던 몇 분의 시간이 흘러 반가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왔고, 마가릿은 목숨을 건진 건 정말 행운이라는 구조대원의 말에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산소마스크를 쓴 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갈 때 이미 마가릿의 미래는 방금 떠올랐던 하늘보다 더 먼 곳으로 멀어진 후였다.

이제 두 번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게 된 마가릿은 갑작스러운 낯선 삶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말처럼, 전혀 몰랐던 가족의 비밀까지 마가릿을 덮쳐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린다. 평온한 삶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좌절이 모든 희망을 앗아갔을 때, 마가릿은 뜻밖의 장소에서 어쩌면 다시 행복을 찾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웃음과 눈물을 모두 선사하는 마가릿의 현실적인 고투는 매일 삶과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동질감과 진한 감동을 안겨준다.

- * 니콜라스 스파크(Nicholas Sparks)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 매리언 키스(Marian Keyes)의 유머와 위트를 떠올리게 하는 소설
- * 담백하고 솔직한 글, 유머로 웃음을 주고 사랑, 꿈, 장밋빛 미래를 잃는 주인공을 통해 눈물 흘리게 하는 현실적인 이야기

<저자 소개>

캐서린 센터(Katherine Center)는 『Happiness for Beginners』, 『The Bright Side of Disaster』, 『Everyone Is Beautiful』, 『Get Lucky』, 『The Lost Husband』 등 총 다섯 권의 소설을 발표하고 특유의 유머 감각과 사람의 마음의 들여다보는 통찰력으로 찬사를 받았다. 특히 『Happiness for Beginners』는 「인스타일(In Style)」 매거진에서 북클럽 도서로 선정되며 베스트셀러에 올라 독일과 불가리아에서도 출간됐다. 그 외 책들도 브라질, 체코,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에 판매되며 인기를 얻었다.

Praise for
HOW TO WALK AWAY
KATHERINE CENTER

Rights sold to Germany, Slovakia, Russia, Israel, Italy, Netherlands, Sweden, and UK!

"Center transforms the story of a family tragedy into a heartfelt guide to living the fullest life possible." - Publishers Weekly

"Inspiring and romantic... A touching and truthful novel that shows how people can find comfort in the most unexpected places." - Library Journal

"A heartbreak of a novel that celebrates resilience and strength." —Jill Santopolo, bestselling author of *The Light We Lost*

"If you just read one book this year, read *How to Walk Away*." —Nina George, *New York Times* bestselling author of *The Little Paris Bookshop*

"Warm, witty, and wonderfully observed." —Emily Giffin, *New York Times* bestselling author of *First Comes Love*

"Sympathetic and refreshing!" —Elinor Lipman, bestselling author of *The Family Man*

"I can't think of a blurb good enough for this novel...poignant, funny, heartbreaking." —Jenny Lawson, bestselling author of *Furiously Happy*

NAMED A 'BOOK OF THE MONTH' PICK AND AN 'INDIE NEXT PICK' FOR MAY!

SOUTHERN LIVING, BEST BEACH READS OF SUMMER, Roundup

BOOKBUB, FB LIVE, 10 Books We Can't Wait to Read this Spring

BOOKBUB, 25 New Novels We're Looking Forward to Reading This Spring

OXFORD MAGAZINE (Mississippi), 'Book Chat' Feature, May Issue

BRIT + CO – Confirmed, New Books to Settle Down with Over Memorial Day, late May

WORKING MOTHER – Confirmed, Summer reading list

SHEREADS.COM – New release spotlight, Read Here

What she reads if she loves Emily Giffin:Read Here

BOOKSTR – Confirmed, The Biggest Books of Summer 2018 List

추가 업데이트

제목 : CONNECT

가제 : 커넥트

저자 : Julian Gough

출판사: Picador

발행일: 2018년 5월 3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SF스릴러



* 독일, 터키 판권 계약 /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추가 판권 계약

* 『카운트 제로』의 윌리엄 김슨, 『스테이션 일레븐』의 에밀리 세인트존 멘델 팬이라면 주목해야 할 도서 / 자폐증이 있는 천재소년이 목숨을 걸고 코딩을 한다!

세상의 모든 일을 컴퓨터가 처리하고 그 과정에 마음대로 끼어들 수 있는 해커가 권력을 갖는 세상, 지금으로부터 머지 않은 미래 세상에서 보통 아이들과는 달라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콜트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난징이 고향인 엄마와 공식적으로는 이름도 없는 정부 조직에서 일하는 아빠의 외동아들인 콜트는 부모님이 이혼한 뒤 생물학자인 엄마와 둘이서 살고 있다. 두뇌는 비상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증상으로 인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흠 스킨이 겉으로 보이는 공부 시간의 전부다. 그러나 ‘선생님’인 엄마가 새로운 연구 때문에 밤낮없이 바쁜 사이, 콜트는 가상현실 게임을 즐기고 혼자서 코딩을 배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습득한 해킹 기술은 엄마 몰래 연구소 컴퓨터를 열어서 엄마가 요즘 가장 고민하는 실험 주제를 파악한다거나 집에 있는 냉장고 문에 엄마가 가장 싫어하는 잔소리가 자동으로 떠오르도록 하는 것 정도의,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콜트와 엄마 모두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 인물로 지목된 것이다.

통찰력 있고, 영리하고, 눈부시게 빠른 페이스로 전개되어 손에서 놓기 어려운 SF스릴러

문제는 인간의 팔다리를 생물학적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법을 찾아내려는 엄마의 연구가 놀라운 성과를 얻으면서 시작됐다. 마우스 실험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성공을 거둔 이 실험을 사람과 가장 가까운 영장류를 대상으로 테스트해야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 등이 걸려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어느 때와 같이 엄마가 출근한 사이 회사 컴퓨터를 들여다 본 콜트는 엄마가 작성 중인 논문을 모두 읽고, 실험을 못 한 단계이긴 하지만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얼마 후, 중요한 학회에 참석한 엄마 나오미는 생체 재생에 관한 혁신적인 기술을 발표하는데 뜻밖에도 콜트의 생부

이자 이혼 후 거의 교류가 없는 라이언이 몸 담고 있는 은밀한 국가 안보기관이 나오미의 성과에 주목한다.

학회는 콜트와 엄마가 사는 네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라, 엄마는 처음으로 콜트만 집에 남겨두고 먼 길을 떠났다. 엄마가 없는 사이, 끼니를 해결하려고 피자를 주문한 콜트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작은 헬멧을 쓰고 나타난 배달원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다. 또래 여자아이로 보이는 그 피자 배달원은 콜트가 직접 만들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인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을 즐겨 사용하는 게이머이자 콜트 못지 않은 해킹 실력을 갖춘 아이였다. 인게임을 만든 사람이 콜트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피자를 배달하는 순간 전산 시스템을 해킹해서 집 주소를 알아낸 것이다. 즉 엄마가 없는 틈에 집 앞까지 찾아온 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 모든 사실을 털어 놓은 그녀는 콜트가 지금까지 해온 굵직한 해킹과 게임 프로그램에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대형 게임업체 외에 콜트가 만든 것처럼 누구나 코드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게임 중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칭이 마르게 칭찬한다. 게임 명은 ‘스노우 퀴’이라는 이 사샤라는 여자 아이의 이야기에 콜트는 다시 한 번 소스라치게 놀란다. 드넓은 가상 세계 속에서 ‘스노우 퀴’이 버려진 광산 마을에 만들어 놓은 세계를 보고 정교한 구조와 안정적이면서도 평온한 분위기에 감탄했던 기억이 떠오른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실력을 제대로 알아보고 동질감과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같은 느낌을 받은 두 사람은 단숨에 단짝이 되고, 그 때부터 사샤는 콜트가 겪게 되는 시련과 원치 않은 탈출, 도주 과정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원동력이 된다.

군 출신인 콜트의 아버지 라이언은 다른 요원들보다 먼저 나서서 직접 자동차와 감시 카메라가 달린 드론까지 작동 시켜 전처인 나오미와 콜트를 잡아들이려고 한다. 위기에 처한 나오미는 콜트와 함께 무작정 도망 치기 시작하고, 콜트는 정교한 코드로 가상 세계를 만든 것처럼 가장 큰 위험에 처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리하여 콜트는 지금껏 발휘해온 모든 해킹 기술을 토대로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한다. 책 제목에 등장하는 ‘연결’의 의미는 이 책에서 나오미가 연구하는 생체 조직에도 적용되고, 가상 현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가 쏠살같이 오간다는 의미로, 동시에 아무리 발전한 기계라도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과 인간의 미묘한 감정적 연결까지 광범위한 의미로 활용된다. 가족과 국가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내려야 했던 로저의 상황과 자폐라는 문제를 안고 남들과 다른 자신을 세상과 단절시키는 대신 연결시키려 노력하는 콜트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족, 그리고 친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줄리안 고프(Julian Gough)는 2007년 BBC 내셔널 단편 상을 수상하고 2008년과 2012년에는 코믹 소설에 수여되는 ‘에브리맨 올린저 우드하우스 상(Everyman Bollinger Wodehouse Prize)’ 결승 후보에 올랐다. 2011년에는 타임 지 선정 ‘올해의 게임’으로 선정된 마인크래프트(Minecraft)의 결말을 썼다.

Review on

The Sunday Times, April 22 2018

Review: Connect by Julian Gough — plug into the zeitgeist

A boy's brain is upgraded in a playful predictive novel set in the near future

Review by Claire Lowdon



Julian Gough: embraces the transformative possibilities of technology JULIANA SOCHER

‘I don’t get the impression many Irish writers have played Grand Theft Auto, or bought an X-Box, or watched Youporn,’ said Julian Gough in 2010, a year before he wrote the ending to the hugely popular video game Minecraft. His new novel *Connect* is so plugged into the technological zeitgeist that plugs are nearly a thing of the past. Instead, the characters in Gough’s near-future Nevada charge their self-drive cars from the “high-efficiency, solar capture surface” of the road as delivery drones swoop overhead.

This is the world we know, several operating systems down the line. One instantly convincing aspect of Gough’s predictions is that he doesn’t equate technological advance with a crippling, totalitarian dystopia (Dave Eggers’s *The Circle*) or social chaos (Lionel Shriver’s *The Mandibles*). Gough’s more plausible guess is that we’ll just be us, only with snazzier apps, which is sometimes a good thing (that solar capture surface) and sometimes not. (“Some biohackers have built an airborne version of bubonic plague, and released it in their high school in Ohio.”)

Like other contemporary novelists (Jonathan Safran Foer, Nathan Hill), Gough is drawn to virtual-reality gameworlds, with their fertile opportunities for metaphor and allegory. His gamer is the teenage prodigy Colt, an in-game god coding ever-more realistic landscapes and weather systems. His equally brainy mother, Naomi, forms the other half of this unique duo, a quirky, cuddly mash-up of Mary and Jesus, Frankenstein and his monster and countless other cultural and mythological references (this is a learned book, despite the fast, frothy prose style).

Using Naomi's biological research, the pair upgrades Colt's brain to give him superior processing power. This provokes his estranged father, who works for a future version of the NSA, to hunt them down in an attempt to prevent this amazing new development from reaching America's enemies.

There is an ingenious framing device in the form of "your friendly local System of Systems", which makes the concept of the omniscient narrator deliciously literal. "From my point of view, one level up," explains the System of Systems in one of its italicised sections, "the guy writing this is a specialist cell. One of many. A conduit. For stories ... I'm the spirit of the time. The Zeitgeist. The muse. Making them twitch. Speaking through them."

And Gough does indeed perform better as a conduit than storyteller. We accept early on that we are here for the ideas, and overlook the fairly functional prose. Sadly, it's not a book you can recommend to everyone as a swift, clever thought-experiment, like Naomi Alderman's *The Power*, because it isn't swift. Notably, the long, centrepiece chase section will be divisive and hard to follow if you haven't played *Grand Theft Auto* or bought an X-Box etc.

Yet Gough's powerful, playful argument will reward the patient reader. What feels so fresh is that this predictive novel avoids even a hint of the usual doomsday clichés. Instead, the transformative possibilities of technology are embraced — to the point where "love is an interface between you and the universe" comes to sound joyfully life-affirming rather than alarmingly clinical.

If someone urges the sloppily written popular science book *Homo Deus* by Yuval Noah Harari on you, read *Connect* instead. Many of the same ideas are in here, more powerfully expressed. It might not be an enduring classic of literature, but it will subtly change the way you see the world.

Praise for JULIAN GOUGH:

'Julian Gough is a wonderful writer' - *Sebastian Barry*

'An outstanding talent' - *Obser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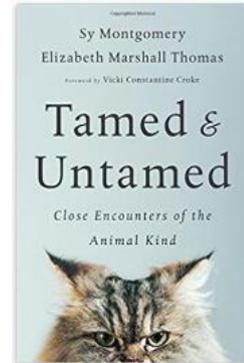
'Thoroughly entertaining' - *New York Times on Juno & Juliet*

'Extremely original and surprising' - *Sunday Independent on Jude*

'Gough makes it look easy, with an instinctive sense of timing, and a razor sharp and subversive intellect' - *Sunday Tribune on Jude*

NON-FICTION

제목 : TAMED & UNTAMED
가제 : 어쩌면 우리보다 나은 동물
저자 : Sy Montgomery, Elizabeth Marshall Thomas
출판사: Chelsea Green Publishing
발행일: 2017년 10월 4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과학/동물학/에세이



- * 「메일 온 선데이(Mail on Sunday)」 선정 2017년 최우수 도서
- * “동물이 대접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두 저자의 통찰과 지식, 유머가 담긴 책. 동물들에 경외심을 갖게 한다.” - 『동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의 저자 프란스 드 발
- * 『문어의 영혼』의 사이 몽고메리와 『세상의 모든 말들』의 엘리자베스 마셜 토마스의 만남

인간이 가장 우수한 동물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동물을 원하는 대로 취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까? 인간 중심적인 사고의 위험성은 산업 혁명이 시작된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동물의 권익과 보호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최근야 겨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생 수많은 동물들을 연구하고 글을 써온 두 베스트셀러 저자는 학술적이고 법적인 지식을 요하는 복잡한 이야기 대신, 지구상에서 늘 인간과 함께 살면서 인간보다 훨씬 더 멋진 세상을 구축해온 여러 동물들의 역사와 특성을 짚막한 에세이 형식으로 들려준다. 우연히 이웃사촌으로 만나 ‘동물 광’임을 알아본 두 저자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 함께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동물들을 관찰하고 연구했고, 「보스턴 글로브」에 함께 칼럼을 게재하면서 그 결과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했다. 이 책에는 두 사람이 함께 쓴 칼럼을 확장시켜 달팽이부터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매, 상어, 개, 사자, 문어에 이르기까지 땅과 바다, 강, 산 등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동물들의 생각과 삶, 수수께끼를 종합해 실었다.

두 저자가 함께 연재한 「보스턴 글로브」의 인기 칼럼을 바탕으로 엮은 동물들의 생각과 삶

뱀장어도 꿈을 꿀까? 문어에게 유머감각이 있다는 말이 사실일까? ‘물곰’이라고 불리는 완보동물이 지구에 5억 년 전부터 존재했고, 인류가 지구를 다 파괴해버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되더라도 살아남을 동물로 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저자는 야생동물과 가축, 반려동물 등 동물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필요한 부분에만 주목했던 동물의 특성에서 벗어나 많이 알려지지 않은 동물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에 초점을 맞춘다. 두 저자가 살고 있는 뉴 햄프셔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슴,

쥐, 각종 벌레와 같은 동물들을 비롯해 서식지로 직접 찾아가지 않는 이상 평생 한 번도 보기 힘든 핑크 돌고래나 하이에나, 바위너구리 같은 희귀 동물들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깨달은 흥미로운 사실에 허를 찌르는 유머를 더해 제시된다. 이 모든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전제이자 메시지는 바로 인간 외에 다른 동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우리 자신, 즉 인간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당연시되던 능력이 다른 동물들에서도 나타나거나, 훨씬 뛰어난 다른 능력을 갖고 이미 오랫동안 생존해온 동물들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되는 이야기들도 많다.

인간과 동물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취급하는 것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하는 멋진 에세이 모음집이다.

<목차>

서문

1부. 동물과 사람

- 선생님이자 치유자인 동물들 / 애완동물이 우리 뇌에 끼치는 영향 / ESP는 가능할까?
천둥 등(이하 생략)

2부. 새

- 대단한 새들 / 퍼핀 M / 불멸의 닭 등 (이하 생략)

3부. 개와 고양이

- 장애가 있는 반려동물 / 개를 기르는 것 / 자그마한 개들 등(이하 생략)

4부. 야생동물

- 곰 / 우리가 싫어하는 “개”들 / 위대한 백상어 / 사슴 먹이주기 / 사자 등 (이하 생략)

5부. 자그마한 동물들

- 민달팽이 / 벌레: 미천한 벌레와 고귀한 벌레 / 양서류 등 (이하 생략)

6부. 동물의 능력

- 사라진 곡예 / 이름이 무슨 죄 / 눈 속에서 / 동물을 위한 음악 등 (이하 생략)

<저자 소개>

사이 몽고메리(Sy Montgomery)는 베스트셀러 저술가이자 연구자, 영화 감독으로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내셔널 북 어워드 결승에 오른 『문어의 영혼』과, 『돼지의 추억』, 『탬플 그랜든』, 『유인원과 의 산책』, 『아마존의 신비, 분홍돌고래를 만나다』 등이 있다.

엘리자베스 마셜 토머스(Elizabeth Marshall Thomas)는 반 세기 동안 인류학과 야생동물, 가족에 관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 왔다. 저서로는 『세상의 모든 딸들』, 『인간들이 모르는 개들의 삶』 등이 있다.

제목: CORPORATE GOAD

가제: 변화를 이끄는 리더의 채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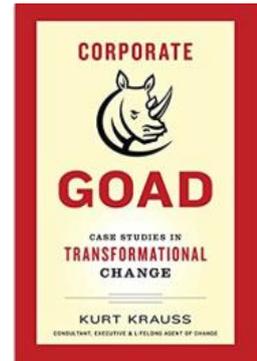
저자: Kurt Krauss

출판사: Ideapress Publishing

발행일: 2018년 4월 3일

분량: 235 페이지

장르: 경영/관리



- * “조직의 일원인 사람, 아직 학업 중인 사람 모두에게 생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효과적인 ‘채찍’을 마련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책” - 인디애나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데이빗 그린 (David Greene)
- * “오랫동안 효과를 발휘했던 전략과 새로운 창의력이 결합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키드 앤 컴퍼니(Kidd & Company) 관리자, 토니 캐스터

분야를 막론하고 산업의 변화는 반드시, 그리고 쉼 없이 일어난다. 현재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변화를 능수능란하게 이겨내어 득이 되는 쪽으로 활용하는 조직도 있지만, 그보다 변화에 힘없이 휩쓸리며 무너지지 않으려고 겨우 버티는 조직이 훨씬 더 많다.

1970년대에 경영 컨설턴트로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리더’가 되는데 심혈을 기울여온 저자는 그 동안 직접 목격하고 지도했던 대대적인 조직 변화의 사례를 모아 이 책에서 제시한다. 공장, 창고, 소매점, 레스토랑, 호텔 체인, 은행, 병원, 크루즈선을 비롯해 규모와 유형, 분야가 제각기 달랐던 수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각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면서 안전하고 유익한 변화의 경로를 제시해온 저자는 그 경험에서 체득한 공통분모를 찾아 무엇이 변화를 주춤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과감한 변화와 그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성과를 낳는지 상세한 사례로 보여준다.

책은 조직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 일명 ‘변화의 리더’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변화의 리더란 수동적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방어할 전략을 세우지 않고, 능동적으로 변화 계획을 수립하고, 구성원 전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고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주체를 가리킨다.

책의 첫 번째, ‘변화의 리더를 위한 지침서’에서는 리더가 수립한 원칙을 성실히 따르고 전파할 ‘제자’를 확보하는 방법부터 현재 조직이 처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단계까지, 성공적인 기업 변화의 뿌리가 되는 필수 단계를 소개한다.

책의 두 번째 부분인 ‘변화의 리더를 위한 툴 킷’에는 기업의 성과를 대폭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를 찾아서 집중 공략하는 요령이 소개된다. 보장 가치를 확보하고 확장하는 방법, 조직 구조를 재정비하는 법과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쓸데없이 복잡하기만 한 절차를 찾아서 아예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법, 가격 책정 원칙을 처음부터 점검하여 최적화하는 방법 등이 상세히 제시된다.

책의 세 번째 '변화의 리더가 맞이할 숙명'은 저자가 1980년대 말에 총 6년에 걸쳐 미국의 대형 병원 여섯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변화 사업을 면밀히 소개한다. 기존의 환자 관리 방식을 재고하여 병원의 수익보다 환자를 우선시할 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이윤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의미 있는 성공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앞서 1부와 2부에서 소개한 변화의 핵심 요소와 접근 방식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제시된다.

메리어트(Marriott Corporation), 타겟(Target), 존스 홉킨스 병원, 제너럴 모터스 등 세계적인 기업에서 실제로 진행된 조직 구조 또는 경영 방식의 변화 과정을 사례로 제시하여 변화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공통점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추려낼 수 있도록 정리한 경영 지침서다.

<목차>

머리말

- 준비 단계 / 숫자에 대하여 / 단어에 대하여 / 변화의 리더들이 내뱉는 탄식

변화의 리더를 위한 지침서

- 제자 만들기 / - 앞장서서 이끌어라
- 주목하게 하라 / - 문제를 정의하라
- 고착된 생각에 문제를 제기하라
- 중요한 가치에 주목하라

변화의 리더를 위한 툴 킷

- 보장 가치의 문제
- 조직 재정비
- 간소화 절차
- 효용성 높이기
- 복잡성 덜기
- 가격 책정의 문제 해결과 최적화

변화의 리더가 맞이할 숙명

- 핵심 진단 분석 등 (이하 생략)

그 이후 / 맺음말

<저자 소개>

쿠르트 크라우스(Kurt Krauss)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MBA를 마치고 부즈 앨런 해밀턴(Booz Allen Hamilton)에서 파트너로 일하다가 1992년에 경영 컨설팅 업체 '미드 포인트 그룹(The Mead Point Group)'을 공동 설립했다. 이후 기업과 조직의 변화를 지원하는 컨설턴트로 활약해 왔다.

제목 : EMOTIONAL SENSITIVITY AND INTENSITY

가제 : 예민함도 재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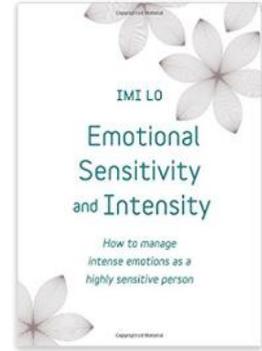
저자 : Imi Lo

출판사: Teach Yourself

발행일: 2018년 2월 1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정신건강/심리학



*** “강력하고 유용하다. 자신의 감정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꿔 놓을 책.” - 비리프 현대 심리치료 연구소(BeeLeaf Institute for Contemporary Psychotherapy) 대표, 파멜라 가울러 라이트**

비슷한 일을 겪거나 심지어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경험한 사람도 저마다 그 일에서 느끼는 감정은 제각기 다르다. 가령 바로 눈 앞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일제히 그 자리에서 굳어버릴 만큼 깜짝 놀라는 반응은 대부분의 목격자들에게서 나타나지만 최초의 충격이 가라앉은 후에 나타나는 반응은 큰 차이가 있다. 바로 돌아서서 가던 길을 가고 반나절쯤 지나면 그 기억이 조금 흐릿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며칠, 심지어 몇 주 이상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악몽을 꾸거나 그 장면이 되살아나는 사람도 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맞닥뜨리는 훨씬 더 미묘한 일들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유독 감정이 ‘격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 너무 예민하다, 감정적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세한 부분을 포착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이 보고, 느끼고 기억하는 특징이 있다. 최근 들어서야 감정의 민감도와 강도가 남들보다 높은 이런 사람들을 향한 정신의학자, 심리학자들의 관심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뿌리 깊은 경우가 많다. ‘세상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사느냐’는 핀잔을 듣기 일쑤인 이 독특한 사람들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상담해온 저자는 감정의 민감도와 강도가 높은 것은 ‘타고난 재능’이라 단언하며, 이 책에서 이들이 가진 놀라운 특성을 상세히 설명한다. 뇌 과학과 심리학, 정신의학적인 분석을 제시하는 한편 문화적으로 잘못 각인된 감정 과잉에 관한 인식을 지적하고, 예술과 스포츠,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 예민한 사람들만이 일궈낸 성과를 소개한다.

감정의 민감도와 강도가 높은 것은 ‘타고난 재능’ - 예민한 사람들만이 일궈낸 성과와 활용방법

말로 다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기분이 급변하고, 그 감정이 싫어서 아무리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해도 바로 눈 앞에 펼쳐진 것처럼 생생한 이미지와 소리, 기억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와 같은 정서적 민감도가 높은 특징이 나타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주변 사람들은 아예 느끼지 못하거나 느끼더라도 금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자책과 자학으로 이어지기 쉬운 이러한 특징은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장애라고

여길 수 있다. 저자는 오랜 세월 감정의 강도가 너무 높아 고민해온 사람들에게, 왜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지 인체 기능적 측면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수치스러워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개인의 성장과 더 나은 삶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누구도 제공할 수 없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중한 재능으로 활용함으로써 하나의 자산처럼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소개된다. 감정이 남들보다 뚜렷하고 민감한 사람들을 향한 고정관념이 왜 이치에 안 맞는 말인지 조목조목 반박한 설명과 대인관계에서 자주 겪는 문제를 해소하는 법과 더불어 급변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실생활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회복력을 키우는 법, 특별한 창의력을 심분 발휘하여 성과를 향상시키는 발판으로 활용하는 법도 배울 수 있다.

<목차>

머리말

1부. 감정의 강도가 높은 사람들

1. 감정의 민감성, 강도, 그리고 재능
2. 감정의 민감성과 강도에 관해 밝혀진 사실
3. 감정의 강도와 영재성
4. 감정의 강도와 정신 건강

2부. 고강도 감정의 복잡한 특성

5. 가정에서
6. 세상에서
7. 마음 속에서

3부. 치유부터 번영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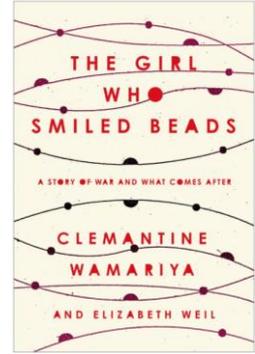
8. 오래된 상처의 치유
9. 정서적 회복력 키우기
10. 진실을 향해 다가가기

(이하 생략, 총 13장과 맺음말로 구성)

<저자 소개>

아이미 로(Imi Lo)는 영국과 홍콩, 대만, 호주에서 정신건강 분야 사회복지사로, 임상 심리치료사, 예술 치료사, 마음챙김 명상 강사로 활동해 왔다. 학술활동과 임상 현장에서 쌓은 업적을 인정 받아 호주 정부가 수여하는 'International Endeavour Awards'를 수상했다. 런던에서 정서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업체 'Eggshell Therapy'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제목 : THE GIRL WHO SMILED BEADS
가제 : 난민 소녀의 노트
저자 : Clemantine Wamariya, Elizabeth Weil
출판사: Crown
발행일: 2018년 4월 24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에세이



- * “전쟁의 공포를 넘어서 폭력과 갈등을 어떻게든 이해하려 했던 어린 아이의 실제 경험이 담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글” - 「라이브러리 저널」
- * “전쟁과 그 여파에 관한 흔한 이야기가 아니다. 가족과 집을 파괴한 잔혹한 전쟁 속에서 정체성을 찾고자 했던 한 소녀의 강렬한 성장기” - 「퍼블리셔스 위클리」

1994년, 르완다에서 나고 자란 클레멘타인은 언니 클레어와 함께 할머니 댁에 먼저 가 있으라는 부모님의 말대로 간단한 짐을 챙겨서 집을 나섰다. 남쪽으로 몇 시간 정도 가야 하는 할머니네 감자 농장은 브룬디 국경과 거의 맞닿아 있었다. 도착하자 다른 사촌들도 꽤 많이 모여 있었지만 어쩐지 클레멘타인은 엄마아빠가 언제 오는지 너무 궁금했다. 하지만 목을 빼고 기다리던 부모님 대신, 잠시 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할머니네 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는 모여 있던 아이들에게 뒷문으로 얼른 빠져나가 도망치라고 고향쳤고, 클레멘타인은 언니 손에 붙들려 영문도 모른 채 미친 듯이 달아났다. 그걸로 끝이었다. 아홉 살 많은 언니와 단 둘이, 아프리카 대륙을 오르내리며 일곱 개 나라를 거치며 무려 6년간 이어진 클레멘타인의 끝 없는 도주는 굶주림과 학대, 고통과 상처의 연속이었다.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건너와 온 좋게도 자기 자식처럼 품어준 입양 가정에서 그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삶을 선물 받았지만 그 6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삶은 클레멘타인의 머릿속에, 온 몸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생사도 알 수 없었던 부모님과 극적으로 상봉하고 이제야 아주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되감아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클레멘타인은 이 책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목숨 건 탈출 과정을 낱알이 보여준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은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기 마련이지만 그럴 시기에 발가락이 부러지도록 걷고 또 걸으며 매일 도망 다니던 클레멘타인은 그런 기본적인 신체적 욕구가 미치도록 싫었다고 전한다. 르완다에서 투치족에 대한 대학살이 시작된 1994년에 시작된 두 자매의 난민 생활은 감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난민 캠프에서 겨우 조금 안심했다가 다시 탈출해야만 했던 날들, 비인간적인 잔혹함을 눈 앞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지옥 같은 시간이자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만난 친절할 사람들이 선사한 따뜻함이 마구 뒤엉킨 혼란의 연속이었다. 그 와중에 클레멘타인을 가장 두렵게 한 건, 너무 어리고 자꾸 아프기만 하는 자신이 언니 클레어에게 감당 못할 짐이 되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다. 언니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자신을 버리고 낯선 땅에 혼자 남을 까봐 항상 걱정했던 클레멘타인의 마음과 달리, 언니는 말로 다 하지 못할 수모를 겪으면서도 어린 동생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이 열두 살, 언니가 스물한 살 때 마침내 미국으로 건너온 뒤부터 두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였던 클레멘타인은 시카고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네 번째 아이로 입양됐지만, 이미 성인이던 클레어는 혼자 알아서 살 길을 모색해야 했다. 클레멘타인이 사립학교에 다니고, 치어리딩까지 시작하고 예일 대학교에 진학해서 하고 싶은 공부에 빠져 사는 동안 언니는 폭력으로 생긴 아이를 씻이나 나아서 길러야 하는 미혼모로, 여전히 궁핍한 생활 속에서 허우적대야 했다.

클레멘타인은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현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극적으로 바뀐 자신의 삶과 극과 극의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느낀 것들,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보는 자신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 상황이 아무리 좋아지고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행복은 거의 다 갖게 된 것 같은 순간에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폭력과 피로 얼룩진 기억, 코 앞에서 목격한 죽음이 남긴 트라우마의 깊은 영향, 그래서 성인이 된 지금도 어느 순간 여섯 살짜리 꼬마가 된 것 같다가 동시에 100세 노인이 되어 버린 듯한 묘한 기분에 사로잡히는 기분을 생생하게 전하는 클레멘타인의 이야기는 “희생자”라는 세상의 딱지만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리고 절대 씻어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고통 속에서도 또 살기 위해 노력하고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도록 이끄는 놀라운 생명력과 회복력의 힘도 엿볼 수 있다.

<목차>

머리말

- 별도 소제목 없이 22장으로 구성

“무섭고 놀라운 동시에 삶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인간이 전쟁에 치러야 하는 대가를 섬세하게 묘사한 책” - 「워싱턴 포스트」

<저자 소개>

클레멘타인 와마리아(Clemantine Wamariya)는 르완다에서 태어나 열두 살부터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서 살았다. 예일 대학교에서 비교문학을 공부하고 인권 운동가이자 스토리텔러로 활동해 왔다.

엘리자베스 웨일(Elizabeth Weil)은 「뉴욕타임스 매거진」 작가이자 「아웃사이드」 매거진 편집자로 「보그」에도 글을 기고해 왔다. 뉴욕 기자클럽 상, 로웰 토머스 상(Lowell Thomas Award) 등 기자와 저술 활동으로 여러 가지 상을 수상했다. 내셔널 매거진 상, 제임스 비어드 상(James Beard Award) 결승 후보로도 선정됐다.

제목 : YOU ARE WHAT YOU THINK

가제 : 생각이 나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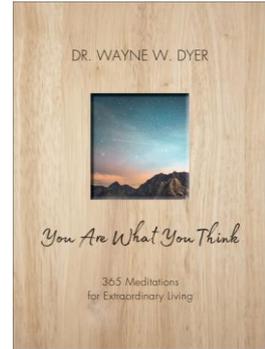
저자 : Wayne Dyer

출판사: Hay House Inc.

발행일: 2018년 10월 2일

분량 : -

장르 : 자기계발



*** 1년 365일, 매일 하나씩 읽고 마음에 새길 만한 유용한 조언을 담은 지침서**

*** 팬들로부터 '동기 부여의 아버지'라 불리는 자기계발 분야 전문가가 선별한 뜻 깊은 이야기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보다 해야 하는 것을 꾸역꾸역 해내느라 하루가 금방 지나가게 마련이다. 숨 넘어갈 것처럼 다급한 순간이 지나면, '내가 뭘 하고 있나', '제대로 살고 있나' 같은 생각과 깊은 허무함이 밀려올 때도 많다. 수많은 역경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불가능할 것 같은 꿈을 이뤘다고 이야기하는 저자는, 그 놀라운 변화가 온 좋은 소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단언한다. 모두 내면에 신성한 본질이 존재하지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느라 그 중요한 본질과 마주하거나 존재조차도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남들이 정한 가치와 행복의 요건보다 내면에서 늘 기다리고 있는 이 신성한 본질을 알아보고, 다른 생각들에 휩쓸리기 쉬운 자신의 의식을 바로 잡을 때 비로소 가장 바라는 것을 찾고 그것을 향해 살아갈 수 있다. 강연과 비디오 강좌, 스무 권 이상의 베스트셀러를 포함한 마흔 권 넘는 저서를 통해 이 사실과 현실적인 실천 방안을 소개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하루에 하나씩 읽고 그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조언을 선별하여 소개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날짜 별로 매일 하나의 정보 혹은 유익한 충고가 나와 있지만 날짜와 상관없이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어도 좋은 조언들이 가득하다. 저자의 간결하면서도 모호하지 않고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지침은 5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메일로 저자의 글을 정기구독하고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입증됐다.

무의식적인 생각은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이 마치 현실처럼 느끼게 만드는 엄청난 힘이 있다. 생각한 대로 보는 것, 거짓말 같은 이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라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생각을 실제 일어난 일처럼 느끼며 끌려가는 대신 꼭 이루고 싶은 것이 마치 현실처럼 느껴지게끔 이 놀라운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저자는 무의식에 관한 이 같은 이야기와 함께, '오늘이 남은 생의 첫 날인 것처럼 살라'는 흔한 격언에 대해서도 나름의 견해를 제시한다. 오늘을 생의 첫 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더 바라는 것도 없이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과거는 이미 지나가버렸고 미래는 그 누구도, 무엇도 확신할 수 없는 만큼 그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아쉬움 없이 살아보면 어떨겠냐는 생각이다. '나부터 사랑하라'는 흔한 조언에 대해서도, 저자는 특별한 생각을

덧붙여 우리에게 전한다. 무수히 들어본 말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남을 더 동경하고 사랑하면서 정작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사랑하는 법’ 자체를 절대 깨우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고 싶은 대상이 있더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대상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성공을 쫓아 달리는 삶은 어떨까? 저자는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내달리는 것은 손으로 물을 움켜쥐려 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한다. 손에 힘을 줄수록 잡히는 물의 양은 적어지고, 오기가 생겨 자꾸만 더 원하기만 할 뿐 가질 수는 없는 안타까운 결과가 반복된다. 다 알고 있지만 자꾸 잊어버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가만히 짚는 조언들도 많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평생 하는 생각과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무익하고 소용 없는 것 두 가지는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라는 짝막한 충고는 큰 공감과 함께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을 멈추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든다.

이처럼 저자는 페이지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담백한 어조로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는 진실을 가만히 제시한다. 몰랐던 사실들도 포함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한 번쯤 들어봤거나 이미 알고 있지만 흘러버린 귀중한 메시지들이다. 늘 가까이에 두고 힘을 얻고 싶을 때, 혹은 새로운 영감이 필요할 때 읽어보면 좋을 만한 책이다.

<목차>

- 별도 소제목 없이 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65개의 장으로 나뉨

<저자 소개>

웨인 다이어(Wayne Dyer)는 개개인이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을 강연과 저서로 전파해 온 자기계발 분야 전문가다. 40년 넘게 활동하면서 40권이 넘는 책을 썼고 그 중 21권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였다. 텔레비전,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다수 출연했다. 현재 52만 8천여 명이 이메일 구독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으며 페이스북 팔로워도 310만 명에 이른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10 Secrets for Success and Inner Peace』, 『The Power of Intention』, 『Inspiration』 등이 있다.

제목 : BIRD IN THE ANCIENT WORLD

가제 : 고대 새들의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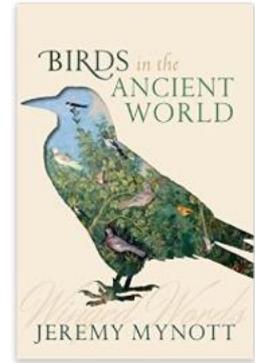
저자 : Jeremy Mynott

출판사: Oxfo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8년 5월 24일

분량 : 480 페이지

장르 : 역사/동물



* “세상이 기다려온 책. 세심한 구성과 상상력, 아름다운 문장에 강렬한 열정이 담겨 있다. 새와 인간의 관계와 ‘자연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그리스인들, 생각과 관찰을 살아 숨쉬는 것으로 만든 학자들의 이야기를 동시에 제시한 책” - 『Darwin – A Life in Poems』의 저자 루스 패렐

한 때는 사람들과 매일 부대끼며 늘 곁에 있던 동식물이 자취를 감춰버린 안타까운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멸종을 막기 위해 과학계와 시민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생존과 번식이 어렵다고 판단한 소중한 동식물들은 자꾸 하나 둘, 우리 곁에서 사라져간다. 새도 마찬가지다. 먼 옛날 고대 사회에는 새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을 뿐만 아니라 종류도 굉장히 다양했다. 철저히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 다양한 새들이 인파로 북적대는 시내건 한적한 시골이건 곳곳에서 사람과 함께 살았다. 아테네와 로마에서는 조금만 교외로 나가면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를 수시로 들을 수 있었고 뻐꾸기와 오디새의 소리는 도시 안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었다. 동물원에나 가야 볼 수 있게 된 독수리는 도시를 벗어나기만 하면 머리 위에 빙빙 도는 모습이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새가 눈에 자주 띄고 귀에 울음소리가 자주 들린 만큼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림과 문학, 연극에 새가 등장하거나 스토리 혹은 주제의 핵심이 되고 새가 상징물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신화와 민화, 동화와 같은 이야기에서도 다양한 비중으로 등장했다. 저자는 기원전 700년부터 서기 300년까지 총 1,000년 동안 이처럼 새가 그려지고, 활용된 각양각색의 사례를 이 책에서 정리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저술가, 작가, 화가들은 물론 그리스어, 라틴어로 작성되어 아직 한 번도 영어로 번역된 적이 없는 자료에 이르기까지 120명이 넘는 저자가 남긴 방대한 자료를 모두 저자가 직접 번역하고 요약한 내용들로 구성된다. 왜 현대 사회와 달리 고대 사회에는 새가 그토록 사람들과 친숙했는지, 인간의 문화와 예술활동, 일상적인 삶에 새가 어떤 의미였고 그 의미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실용적인 시각에서는 새가 어떻게 이용됐는지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가 모두 담겨 있다.

새는 시간과 날씨, 계절을 구분하는 지표로도 활용됐다. 사냥하거나 직접 사육했던 식량 자원이기도 했고,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각종 병을 낫게 하는 약재로도 활용됐다. 늘 곁에 두고 가족처럼 생활하는 애완동물이자 관중들 앞에서 즐거움을 선사하는 존재인 동시에 사람들이 애써 기른 농작물을 다 먹어 치우는 골치 아픈 존재였고 사람이 볼 수 없는 것까지

멀리서 내다보는 유능한 보조병 역할도 맡았다. 인간의 상상력이 더욱 깊이 반영되어 뭔가 좋은 것, 안 좋은 것을 예고하는 길조 혹은 흉조로도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었고 신과 인간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으로 여겨지던 시대도 있었다. 저자는 분류학을 포함한 새의 생물학적, 생태학적 특징을 연구한 문헌과 함께 역사, 지리, 여행에 관한 책에 등장한 새의 모습, 그리고 그림과 도예, 조각, 동전, 봉인 등 고대 예술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새의 형태와 특징을 총망라하여 이 책에서 소개한다.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인식하는 자연과 고대인들의 시각이 놀라울 만큼 비슷하거나 아예 일치하는 부분, 혹은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을 새를 일종의 프리즘으로 삼아서 설명한 특별한 책이다.

<목차>

서문 / 타임라인 / 1세기 지도

1부. 자연계의 새들

머리말

1. 계절
2. 날씨
3. 시간
4. 음악적 파노라마

2부. 자원으로서의 새

머리말

5. 사냥
6. 요리, 음식
7. 사육

3부. 새와 함께 하는 삶 (머리말, 8-10장)

4부. 발명과 발견 (머리말, 11-13장)

5부. 새와 생각 (머리말, 14-16장)

6부. 중간 매개체로서의 새 (머리말, 17-20장)

부록: 고대 자료에 등장하는 새 목록

<저자 소개>

제레미 마이노트(Jeremy Mynott)는 캠브리지 대학교 출판사 대표를 역임하는 등 30년 이상 출판계에서 경력을 쌓아 왔다. 저서로는 「가디언」으로부터 ‘우리가 왜 새를 바라보게 되는지 가장 세밀하게 밝힌 책’이라는 평을 들은 『Birdscapes: Birds in Our Imagination and Experience』(2009) 등이 있다.

추가 업데이트

제목 : ASIA'S RECKONING

가제 : 아시아의 판단: 중국과 일본, 그리고 태평양 시대 미국의 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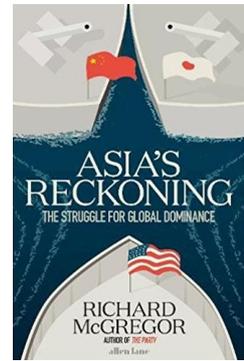
저자 : Richard McGregor

출판사: Allen Lane

발행일: 2017년 9월 5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정치/국제관계



* A Financial Times Best Book of 2017, 대만 판권계약

* 2011년 아시아 소사이어티(Asia Society) 올해의 도서 선정,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 올해의 아시아 도서 상 수상작 『중국 공산당의 비밀(THE PARTY)』의 저자가 선보이는 신작

중국과 일본의 대립 구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의 국제 면을 장식하는 IS 테러나 북한 김정일의 새로운 위협에 관한 소식에 늘 가려져 있지만, 두 국가의 신경전은 수 세기에 걸쳐 수면 아래에서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더불어 현재 전 세계 경제의 주축이 되었다. 전 세계 전자제품 매장에 진열된 휴대전화와 컴퓨터, 평면 TV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 영국 쇼핑몰을 가득 채운 대량 생산된 가구와 저렴한 의류 제품부터 전선, 밸브, 기계 부품 등 일반 소비자들은 거의 접할 일이 없는 광범위한 산업용품까지 아시아의 두 거대한 국가와 연관되지 않은 제품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국제 무역 차원에서 중국과 일본의 무역거래는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관계는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 수년간 이 위태로운 관계가 더 악화될 조짐만 더해졌다.

동아시아 정치와 세계 정세와의 관계에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반세기 넘게 지키려고 애써 온 전 세계 평화와 안보와 별개로 점차 심화되고 확대되는 중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균열이 현재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분석한다.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미국의 파워는 현재까지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지만 한편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긴장을 높여 라이벌 구도를 악화시킨 부분이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충동적 발언과 미국의 오랜 우방 국가들이 미국에게 등을 돌리는 변화는 이 아슬아슬한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저자는 수십 년간 아시아 지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힘을 발휘했던 미국의 권력이 어느 시점부터, 어떤 이유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추적한다. 미국과 아시아 곳곳에 흩어진 각종 문서와 자료를 총망라하고 미국, 중국, 일본의 핵심 인물들이 남긴 기록을 종합하여 저자는 정치외교적 대 변동의 현황과 이러한 변화를 유발한 세 국가의 정치적 상황, 개별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추적한다.

미국의 과도한 영향력과 아시아 지역에서 독보적인 권력을 차지하려는 중국과 일본의 치밀한 노력, 세계 패권에 도전했던 국가에서 지난 20년간 급속히 쇠락한 일본과 그에 맞서 모두의 예상을 뛰어 넘어 경제적, 군사적으로 우뚝 성장한 중국의 패기 넘치는 발전 과정을 짚어보면서, 저자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미국에 끼칠 영향과 세 강대국의 향후 관계 구도가 아시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날카롭게 분석한다. 중국은 전후 미국의 평화 유지 노력에 전혀 동참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아주 오래 전부터 분명히 표명했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적 대립이 벌어질 경우 미국은 일본의 편에 서게 될 것인 만큼, 이 싸움은 결코 당사자들만의 피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1970년대 이후 세 국가의 군사, 외교, 경제적 관계를 총정리하는 동시에 향후 갈등의 여파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적 쓰나미와 무역 피해, 세계 정세의 변화를 세밀하게 진단한다.

<목차>

머리말

전후 시기

1장. 중국, 붉은 색 혹은 녹색

70년대

2장. 일본과 맞서다

3장. 누더기가 된 다섯 개의 섬

80년대

4장. 황금의 시대

5장. 일본의 거절

90년대

6장. 아시아의 가치

7장. 사과와 불만족

21세기

8장. 야스쿠니 신사 참배

9장. 역사의 가마솥

(이하 생략, 총 15장과 맺음말로 구성)

<저자 소개>

리처드 맥그리거(Richard McGregor)는 아시아와 북미 지역 주요 언론사에서 특파원, 기자로 활약한 저널리스트 겸 저술가이다. 파이낸셜 타임스 워싱턴 지부장을 지내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BBC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저서로는 2011년 아시아 소사이어티(Asia Society) 올해의 도서로 선정된 『The Party: The Secret World of China's Communist Rulers』가 있다.

Praise for
ASIA'S RECKONING
RICHARD MCGREGOR

Asia's Reckoning has been shortlisted for the prestigious Lionel Gelber Prize 2018!

The Lionel Gelber Prize, a literary award for the world's best non-fiction book in English on foreign affairs that seeks to deepen public debate on significant international issues, was founded in 1989 by Canadian diplomat Lionel Gelber. A cash prize of \$15,000 CDN is awarded to the winner. The award is presented annually by The Lionel Gelber Foundation, in partnership with *Foreign Policy* magazine and the Munk School of Global Affairs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McGregor is perfectly placed to analyze the crucial three-sided relationship that defines the balance of power in the Pacific." —**Gideon Rachman, *Financial Times* (Best Books of 2017)**

"McGregor has written a shrewd and knowing boo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Japan and America over the past half-century. Among much else, he shows how the world's top three economies are now imprisoned by increasingly unstable dynamics, and not only in the military realm. Though Mr. McGregor has pored over archives to put together a hard-to-surpass narrative history of high diplomacy in Asia, the strength of his book is its old-fashioned journalism, in which empathy and explanation outweigh mere exposé. Indeed, *Asia's Reckoning* has the aura of a 'tour-ender,' the kind of conspectus that foreign correspondents of a generation ago and further back would put together after they had finished a multiyear stint in some far-flung place. Here are insightful, detail-rich profiles of everyone from Zhou Enlai and Henry Kissinger to Kakuei Tanaka and Jiang Zemin." —**Robert D. Kaplan, *The Wall Street Journal***

"A well-documented account of the post-war triangular relations between China, Japan and America. . . . McGregor [has] access to a range of archives and memoirs beyond the reach and nuanced comprehension of most other scholars. His narrative of relations and contacts between the leading politicians and policy-makers in both [China and Japan], and of America's interplay with the two, makes for a compelling and impressive read. One notable feature is how often the Americans, from Henry Kissinger to Barack Obama, seem to find their close Japanese allies more irritating and harder to understand than their Chinese counterparts, even as a rising China is coming to be seen as America's greatest 21st-century challenger." —***The Economist***

"Sometimes a crisis hits that reminds us of the need to think in terms of the interplay between multiple centers of power, and of the value of books that do not confine themselves to bilateral relations. The current furor over North Korea is one such crisis, and Richard McGregor's skillfully crafted and well-argued *Asia's Reckoning* is a good example of the sort of book I have in mind. . . .

The great strength of *Asia's Reckoning*, indeed, is that it encourages the reader to look for continuities amid apparent dramatic change, as well as subtle changes amid apparent continuity. McGregor helps us appreciate the areas where leaders of the US, Japan and China find it easiest and hardest to find common ground. He also sensitizes us to the complex ways in which the ratcheting up or loosening of tensions between Washington and Tokyo or Beijing inevitably affects the strategies of leaders based in the other east Asian capital. . . . An engaging, timely book that provides a nice complement to important recent studies focusing on two points of the US-China-Japan triangle." —**Jeffrey Wasserstrom, *Financial Times***

"Tackles how the interplay of Chinese assertiveness with Trump's dissolution of US power is fundamentally altering the balance of power in this vast region. . . . McGregor's brilliant book is packed with insights, especially on the complex Sino-Japanese relationship, the gist of that being that past history should be our teacher rather than master. Will a more powerful China learn magnanimity, one wonders." —**Michael Burleigh, *Evening Standard* (Best Books of 2017 Selection)**

"[McGregor] has a sharp eye for personalities and policy factions, as well as a firm grasp of geopolitics. His fascinating narrative of the three countries' relations over 50 years is filled with fresh anecdotes drawn from interviews and newly released archival documents. . . . Flinty realism has usually driven trilateral diplomacy, but in McGregor's view, no factor has done more to sustain the shape of the triangle than Japan's inability to allay Chinese resentment over the depredations of the 1930s and 1940s." —**Andrew J. Nathan, *Foreign Affairs***

"Undoubtedly the best book I have read all year. . . . The main strength of McGregor's account is that it shows how important history has become to relations in the region. . . . One of the themes of McGregor's book is that Americans think China is much easier to read than Japan, where they find the corruptly byzantine politics and culture of indirection frustrating. . . . Whether, psychologically, the USA can cope with its relative decline and whether China can move to a more magnanimous understanding of its role are the questions on which peace and war in the region hinge." —**Michael Burleigh, *Literary Review***

"McGregor warns against underestimating the historic tensions between China and Japan. Trade and tourism may run smoothly between the two pragmatic, business-minded nations, but deep, mutual dislike simmers under the surface. McGregor says it would not take much of a trigger to disrupt the region's tentative peace. . . . An excellent modern history book that explains the roots of the complex political, business and military ties between major superpowers. In an age of rocky global politics, *Asia's Reckoning* provides the context needed to make sense of the region's present and future." —**Joyce Lau, *South China Morning Post***

"McGregor deploys interviews with heavy hitters from all three countries and cites extensive archival

research to provide readers with a comprehensive look at this often misunderstood trilateral relationship. Whether it's Chinese Communist Party founder Mao Zedong thanking Tokyo for its invasion of his country, or Japan's fears of being replaced by China as America's top partner in Asia, or Henry Kissinger's intense distaste for Tokyo's droll diplomats, McGregor mixes in one little-known anecdote after another to pull readers through his narrative. . . . Balanced and insightful, the book goes the extra mile to delve into the minutiae of the relationships, taking readers beyond mere Japanese peculiarities, Chinese propaganda and American stereotypes. . . . This is an astute take on the three nations' modern ties, serving up a much-needed and often overlooked helping of the context necessary for making sense of Asia complexities."

—**Jesse Johnson, *Japan Times***

"A must read for anyone who wants to understand our future. *Asia's Reckoning* provides a detailed picture of the slow military, diplomatic and economic waltz between Chin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at determined the shape of the past half-century. . . . The framework that previously determined the contours of our international engagement is changing. McGregor [is] dealing with a subject that's crucial—China's place in the world—but does so in an intimate manner, bulging with insightful interviews with the players behind the scenes." —**Nicholas Stuart, *Brisbane Times***

"A compelling account of the post-war relationship between China, Japan and America [that] brings to life one of the world's most complicated love-hate triangles." —**Clifford Coonan, *The Irish Times***
"McGregor shows that U.S. diplomats and military strategists have deftly played the Sino-Japanese rivalry in the Pax Americana period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However, he is concerned that the tightrope is becoming frayed and that if it breaks, all three performers could be in for a terrible fall. . . . [*Asia's Reckoning*] has anecdotes and insights that will delight policy wonks interested in the region."

—**Gary Anderson, *The Washington Times***

"For journalists taking up new posts in China, the first book I always suggest is Richard McGregor's *The Party*. I will now add McGregor's new book, *Asia's Reckoning*, to my list for those headed to the Far East." —**Melissa Chan, *Los Angeles Review of Books***

"In spite of the recent crisis with North Korea, the critical relationship for Asian peace and stability in the 21st century will be the trilateral balance between Chin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spite of the economic interdependence of these nations, their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often clash with their trade interests, and the rise of China as both an economic and military power now threatens to upend the entire East Asia security structure. . . . This book is an essential primer for anyone seeking to understand the complicated brew of history, politics, and prejudices that make this area of the globe one of the most likely flashpoints of the 21st century."

—**Jeremy Lenaburg, *New York Journal of Books***

"McGregor anatomizes the dynamic, often strained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China, Japan, and the U.S. since WWII. His informed volume comes at a time when, in his opinion, East Asia sits at the heart of the global economy and China's aggressive foreign policy is upsetting the region's stability. . . . Often critical of Washington's 'combination of idealism and arrogance,' McGregor offers detailed, vivid descriptions of America's Asian diplomacy. . . . Reviewing East Asia's toxic rivalries with balance and insight, McGregor's survey concludes ominously with President Trump's lack of familiarity with regional issues and disdain for old alliances, portending further tensions in East Asia's future." —***Publishers Weekly***

"[A] wide-ranging study of China's re-emergence as a regional power in Asia after a long hiatus, thwarting the designs of other pow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 . . The U.S. [finds itself] firmly ensnared in the so-called Thucydides trap, 'the principle that it is dangerous to build an empire but even more dangerous to let it go.' So it is, and the current leadership appears to be at a loss about what to do or to formulate other aspects of any coherent policy in and toward Asia. . . . Geopolitics wonks will want to give attention to this urgent but nonsensationalized argument."

—***Kirkus Review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form the power triangle that will shape much of the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21st century. Richard McGregor's masterful *The Party* illuminated one corner of that triangle—China. In this important book he describes how the other two corners have interacted with China since World War II. Lucid, insightful and ominous, as the author describes big trouble ahead." —**Eliot Cohen, author of *Supreme Command***

"Richard McGregor's new book is essential reading for anyone worried about the most fraught relationship in Asia—between China and Japan. With extensive experience in and knowledge of both Chin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McGregor is in a unique position to unpack the relationship and sort through the extensive propaganda and myth-making on all sides. A great read!"

—**John Pomfret, author of *The Beautiful Country and the Middle Kingdom***

"McGregor distills years of meetings with high officials in China and Japan to give a vivid nuanced picture of their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Ezra Vogel, author of *Deng Xiaoping and the Transformation of China***

"An in-depth depiction of radical changes and challenges in Japan-China relations in the post-war period, thoroughly researched and rich in storytelling. In the course of tumultuous relations with China, Japan has had to trail blaze in the face of the rise of China. Japan's naked exposure to the unfolding Realpolitik with China at its core is for the first time comprehensively reviewed."

—**Yoichi Funabashi, former Editor-in-Chief, *Asahi Shimbun***